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	• 미래청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보도	2016.5.30.(월) 14:30 이후	배포	2016.5.29(일)	

책 임 자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최 용 호(02-2100-2860)	담 당 자	박 보 란 사무관 (02-2100-2865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목 : 금융위원장, 문화융성펀드 출범식 참석

1 문화융성펀드 출범식 개요
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'16.5.30.(월), 문화융성 지원계획*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하류콘텐츠 특화 '문화융성펀드' 출범식에 참석

* 2016년 금융위 업무보고 :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 분야에 정책금융 80조원 지원

- 금번 출범식은 **문화창조벤처단지** 방문과 제8차 **핀테크 Demo Day**에 이어지는 **문화융성**을 위한 **3번째** 현장행보로,
- 그간 현장방문이 “**원스톱 금융 지원***”과 “**문화콘텐츠와 핀테크 융합****” 등 문화콘텐츠 금융 접근성 제고에 집중하였다면,

* 문화창조벤처단지 방문('16.2.26.) : 문화콘텐츠 특화 금융 지원을 위한
문화창조금융존 설치 등

** 제8차 핀테크 Demo Day('16.4.19.) : 클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와
핀테크 융합 지원 등

- 금번 문화융성펀드 출범식은 보다 직접적으로 펀드 투자를 통해 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

【문화융성펀드 출범식 세부 개요】

- (방문 기관) KBS 본관, ○ (일 시) '16.5.30.(월) 14:30 ~ 15:20
- (주요 참석자) 금융위원장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방송통신위원장 등
- (펀드 개요)
 - 펀드 규모 : 1,000억원, 5년 만기
 - 투자 대상 : 블록버스터 드라마, 예능, 애니메이션 등 한류콘텐츠 기업

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

-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문화와 창조의 융합 성공사례인 “태양의 후예”를 언급하면서,

- 문화융성분야는 산업 간 융·복합을 통해 연관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경제적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분야로,
- 우수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통한 “코리아 프리미엄” 창출이 문화융성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발언하며,

- 문화융성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금융정책 방향을 강조하였음

- ① (공급 확대)** 문화콘텐츠 산업은 대체로 제작기업이 영세하고, 제조업과 달리 **작품성·홍행가능성**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**민간자금 지원**이 부족한 상황으로,

- 정책금융을 통해 금년 중 **7.2조원** 수준의 자금을 **문화콘텐츠 산업**에 공급하는 한편,

-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 평가가 가능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가치평가를 통해 '문화를 문화답게'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* 문화콘텐츠 가치평가 활용을 위해 콘텐츠진흥원과 산업은행·기업은행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'16.하반기부터 평가결과 활용 예정

- ② (지원방식) 소비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소비자 선호에 민감한 문화콘텐츠 분야에 매우 효과적인 자금 조달 창구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,

- 문화콘텐츠 기업의 클라우드 펀딩 접근성 제고를 위해 「기업투자 정보마당」^{*} 내 「문화콘텐츠 기업정보 마당」^{**}을 구축하였으며,

*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책금융기관이 유망 기업정보를 집중하여 클라우드 펀딩 등 투자기관에 제공하는 사이트(www.ciip.or.kr)

** 현재 애니메이션 4개사, 콘텐츠플랫폼 1개사, 전자출판 1개사, 영화 2개사 등록
→ “인천상륙작전” 펀딩 성공, 2개사는 클라우드 펀딩 진행 중

- 문화콘텐츠 클라우드 펀딩 투자를 위한 **마중물 펀드**(100억원) 등을 통해 **문화콘텐츠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**를 충족시킬 계획이라 밝힘

③ (문화융성 인프라 구축) 문화콘텐츠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금융 접점이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,

- 이를 위해서는 **문화창조벤처단지 내 문화창조 금융존**과 기은, 기보의 **문화콘텐츠 특화 영업점**과 같이 현장의 문화콘텐츠 전문 상담·지원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

3 향후 추진 방향

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**문화융성 금융 지원**을 위한 현장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며,

○ 제2, 제3의 “태양의 후예”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**문화융성펀드 조성** 등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

참 고

문화융성펀드 세부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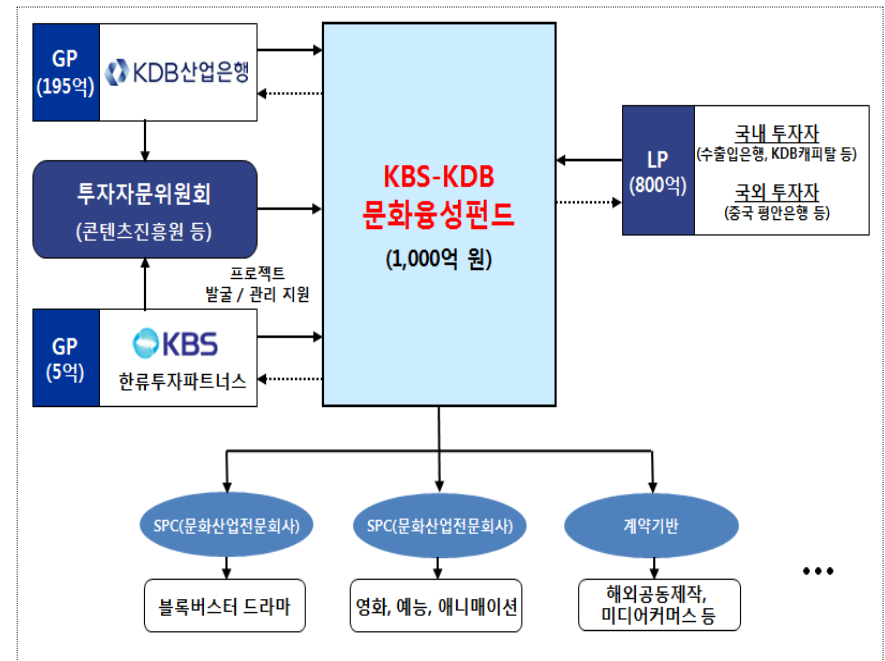
□ (펀드 개요) 산업은행과 KBS가 **한류콘텐츠 글로벌 진출**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조성된 **한류 콘텐츠 투자전용 PEF**

① (문화심사 전문성 확보) KBS, 콘텐츠진흥원 등 **문화콘텐츠 전문기관** 참여를 통해 **유망 콘텐츠 선별 기능**을 강화

② (中 진출 특화) **중국투자자(평안은행)**를 LP로 유치하여 中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**해외진출 판로 확보 용이**

③ (방송 플랫폼 확보) KBS 보유 방송플랫폼*을 활용하여 **우수 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** 가능

* KBS 1, 2 채널, KBS World, KBS N 등 다수의 플랫폼 보유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